

(7) 오천서원(鰲川書院)

차운혁(車云革)과 차원부(車原潁)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자 1793년(정조 17) 주암면 천평리에 창건한 서원이다. 그후 1868년에 훼손당하였는데, 1897년에 복립하면서 여천군 울촌면 신흥리 구암마을로 옮겨 세웠다 한다. 건립의 사정 등은 잘 알 수 없다.

차운혁의 자는 홍기(洪器), 호는 쌍청당(雙淸堂), 세조 때 이시애(李施愛) 난의 토벌에 선봉장으로 나섰다. 단천에서 전사하였다. 강열(剛烈)의 시호를 받았다.

차원부(1320~ ?)의 자는 사평(思平), 호는 운암(雲岩), 본관은 연안이다.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. 당대의 명유 정몽주·이색 등과 함께 명성을 떨치던 학자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. 조선의 개창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나 얼마 후 가족이 모두 암살당하였다.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.